수입밀 대체 작물 '가루쌀 가공 제품' 인기

광주 브레드세븐 제과점, 가루쌀 빵 판매 '문전성시'

aT,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자 모집

19일 광주 북구 본촌동 제과점에서 소비자가 가루쌀로 만든 빵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지 기자

"건강을 생각해서 쌀로 만든 빵을 고르게 됐어요"

수입산 밀 대신 쌀로 만든 빵 등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방문한 광주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브레드세븐 제과점.

이 가게는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 바게트, 카스테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쌀로 만든 빵이라는 설명을 읽고는 관심이 가는지 시식을 하기도 하고 직원에게 쌀로 만든 것이 맞는지 다시 묻기도 했다.

황모(67)씨는 "쌀로 만든 빵이라 밀가루보다 소화가 잘 돼 고르게 됐다"며 "아무래도 건강에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곳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해 쌀로 만든 빵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쌀로 만든 품목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과점 관계자는 "쌀을 이용해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나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고 쌀로 만든 바게트나 카스테라는 완판되는 경우도 잦다"며 "밀가루보다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쌀 소금빵이 출시된 뒤 광주 4개 지점에서 기존 판매 1위 빵을 제치고 대표 빵으로 등극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aT는 올해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과제빵 업계의 가루쌀 활용 촉진과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가루쌀을 활용해 신메뉴를 개발하고 생산과 판매를 희망하는 전국 제과제빵 전문업체들로 대중들이 즐겨 찾는 지역 베이커리 명소, 동네 상권의 제과점, 제과제빵 메뉴를 제조·판매하는 카페나 프랜차이즈 등 모두 신청 가능하다.

모집 규모는 총 30개 업체다.

최종 업체 선정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참여 의지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평가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제과제빵 업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제품개발을 위한 가루쌀 원료와 제품개발비(업체 당 300만원) 등을 지원하며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신메뉴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 메뉴는 수상 기회도 주어진다.

또 모든 신메뉴를 중심으로 SNS와 언론 노출, 국내 유명 박람회 전시, 가루쌀 팝업스토어, 빵지순례 행사 등 연중 홍보 혜택과 함께 우수 사업성과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aT누리집, (사)대한제과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이번 사업은 가루쌀을 원료로 새로운 메뉴 개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전폭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제과제빵 분야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이 새로운 소비의 바람을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중진공 호남연수원,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지원

오늘 연수회 개최…처벌사례·대응방안 등 안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9일 "지난 15일 영암에서 진행한 1차 연수회에 이어 20일 오후 호남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차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체결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

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사례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1:1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중대재해예방 혁신바우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등 중대법 대응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수정 호남연수원 원장은 "업무상 중대재해는 근로자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존속과 성장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연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사고 예방 지원·안전문화 확산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수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호남연수원(062-250-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솔 기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광주상의, 오는 28일 상의 2강의실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8일 광주상공회의소 2강의실에서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이에스 관세법인의 서형석 관세사가 ▲FTA 개념 및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분야별 특례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 시 기업은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인증수출자를 갱신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이후형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FTA 활용 교육은 물론 전문가 상담, 컨설팅, 카탈로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순천상의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첫 시행

5월18일 필기…빅데이터 활용 시각화 프로그램 역량 강화

순천상공회의소는 18일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 Specialist)' 자격 시험을 오는 5월18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신설한 국가기술자격이다.

BI(Business Intelligence)는 기업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그래프 등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엔 이를 위해 수십명의 직원이 데이터를 뽑아 요약했으나 현재는 BI를 통해 수고를 덜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금융권들은 채용 시 BI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각종 공공기관에서 BI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량 강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BI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해 70조원 규모로 예측된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단일 등급이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첫 필기시험은 오는 5월18일에 시행되고, 원서 접수는 1차(3월18-24일), 2차(4월17-23일)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순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증을 도입함으로써 검증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하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월출산 아래 사람 냄새가 나는
영암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신북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영산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 가득한 곳
시종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독천 낙지거리 갈낙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천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암군 YEONGAM-GUN 문의 : 062)650-2099